

라오스 원조동향

I. 국제기구 및 NGO

템 정비, 캄무안주 환경개선 및 주변국으로의 전기 판매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1. 세계은행 라오스 지원

- 세계은행은 빈곤탈출을 위해 16개 프로젝트에 200백만불을 지원 예정
- 주요 지원분야는 주재국 사회개발계획에 부응하는 통신기간시설 확충, 농업, 교육, 공공보건, 에너지, 금융 체재정비
- 또한 세계은행은 2005년 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12억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라오 정부와 2005-2008년 지원 전략을 수립, 분기별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2007년에는 4개 프로젝트에 23백만불을 투입할 계획으로 빈곤퇴치 3차 사업인 금융시스

- 2008년에는 20백만불 규모로 빈곤퇴치를 위한 4단계 분야별 개발, 2차 농촌하부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

2. Unicef 39백만불 무상원조 제공

- 유니세프는 2007-2011 Country Action Plan에 따라 6개 프로젝트에 39백만불을 아동교육, 지역사회개발, 식수 위생프로그램, 아동보호, AIDS프로그램 등에 지원키로 함
- 동 지원은 라오스의 빈곤탈출과 MDG 목표달성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Unicef는 1952년 대라오스 원조를 시작하여 1973년에는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

- 그간 Unicef 프로젝트는 아동 생존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나 1992-1996년 사이에는 25.6백만불, 1998-2002년에는 28.6백만불을 지원하였음

- 총예산 10백만불 중 9.3백만불은 유상으로 0.7백만불은 무상으로 지원됨. 8년 거치 32년간 1.5%의 저리 지원으로 스위스도 동 프로젝트에 3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3. WFP HIV/AIDS 확산 방지 지원

- 주재국의 성인 인구 0.1%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HIV/AIDS 감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에 WFP(World Food Program)는 주재국 2006-2010 AIDS/STI 방지 Action Plan에 의거 HIV/AIDS 인식 캠페인, 여성 및 약재판매자, 매춘부 등 국경 부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별로 교육 실시할 계획임. 대상 지역은 우둠사이, 루앙남타, 타켄, 팍세

5. SEDIF 60만불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 지원

- SEDIF(Le Syndicat des Eaux d'Ile de France)가 소규모 도시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2.8자로 MOU를 체결함
- 동 프로젝트는 주재국 정부 계획 하에 도시지역의 작은 “군”을 대상으로 주민, 공공기관 협력 하에 급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04-2006년까지 SEDIF는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10만불을 투입, 비엔티엔주 6개 마을 1천 가구 6천명에게 급수시설을 지원함

4. ADB 주재국 축산분야 개발 지원

- ADB가 고산지역 소수종족 대상으로 10백만불을 지원하여 400개의 빈곤 마을 17,000명에게 수혜가 돌아갈 전망
- 동 프로젝트는 의사 결정과정, 수행 등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효과를 최대화 시킬 계획이며 축산 생산물의 시장접근성 개선, 생산물 교역 체계 개선이 주요 목적임

II. 주요 원조 공여국

1. 일본

가. 빈곤퇴치를 위한 4백만불 지원

-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ese Bank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4백만불을 제2차 빈곤퇴치운영기금(Poverty Reduction Support Operation 2)으로 차관을 제공기로 함

- 2004. 7월 라오스 정부 빈곤퇴치 전략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빈곤퇴치운영기금에는 세계은행도 지원하고 있고 총 투자 규모는 12.2백만 불로 일본국제협력은행은 금년에 처음 지원함
- 동 지원은 공공분야 재정지출 재정비, 민간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관리능력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라오스는 연간 7%의 GDP 성장율의 꾸준한 유지로 지난 10년간 10% 빈곤층이 감소하였지만 현재 총인구의 33.5%인 빈곤층이 1.9백만명으로 추산되며 공공 보건분야 개선, 기초교육기회 확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유지, 고용율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JIBC는 빈곤퇴치를 위하여 15백만 불을 투입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사바나켓 태국 목다한 국경교량 건설이 있음

나. 라오문화 센터 지원

- 일본은 비엔티엔 라-일 문화교육센터 내에 섬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82천불을 지원할 계획임. 동 센터에서는 라오스 학생들 대상으로 자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라오스 전통악기, 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신축되는 동 박물관에는 오래된 실크 등 섬유제품들도 전시할 계획임

다. 2.6백만불 쌀 지원

- 일본은 2006년에 체결된 Kennedy round 1에 따라 홍수, 해충 등 자연재해피해 농가에 쌀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은 1978년부터 대라오스 원조를 실시해 오고 있음

2. 스웨덴 SIDA 비엔티엔주에 지방도로 건설 지원

-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비엔티엔주 사나캄, 힌업, 토라콤, 폰홍 및 사이솜분 지역 도로건설에 30만불을 지원기로 함. 돈꾸앗마을에서 농콘까지 23.5km, 폰홍에서 후아이두아 10km, 톨라콤에서 나콩까지 10km구간을 건립하게 되며 6월말 종료될 계획

3. 프랑스 AFD 1.2백불 지원

- 프랑스(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관개수리 기술지원(자문)에 1.2 백만불을 지원함. 프랑스는 10년 이상 동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관개수리 기술 자문, 관개수리시설 건립함. 또한, 주재국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의거 지역개발을 위한 관개수리의 현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주, 군단위의 관개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

[자료: 주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